

# 학폭 가해자 심리치료 의무, 피해자는 절반 뿐

### 교육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 제출 2017년~작년 1학기 학폭 피해자 총 16.7만명

특별교육 혹은 심리치료를 무조건 받아야 하는 학교폭력 가해자와 달리, 피해 학생이 심리상담을 지원받는 비율은 절반 가량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 1학기까지 발생한 전국 학교폭력 피해 학생 16만7203명 중 심리상담을 지원받은 학생은 9만

74명(53.9%)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심리상담을 지원받은 피해 학생은 2017년 2만712명(52.9%), 2018년 2만1811명(55.2%), 2019년 2만719명(51.3%) 등으로 2만명을 웃돌다가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7404명(55.2%), 2021년 1만2256명(59.3%), 지난해 1학기 7172명(51.1%)으로 줄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률'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학내의 전문가 심리상담 및 조연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등을 조치할 수 있다.

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자로 조치받은 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

가해자는 심리치료나 특별교육을 무조건 받는데, 피해 학생은 조건부로 심리상담이 지원되는 상황인 것이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 학생 1명에게 2개 이상의 보호조치를 부

과할 수 있지만, 2017년부터 지난해 1학기까지 피해 학생들이 받은 보호조치를 모두 합쳐도 100%에 미치지 못해 피해 학생 보호에 대한 공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2017년부터 지난해 1학기까지 발생한 피해 학생 16만7203명 중 보호 조치를 받은 경우는 12만7253명(76.1%)에 그쳤다.

조치 내용과 규모는 심리상담 9만74명(53.9%), 치료·요양 1만6580명(9.9%), 기타 1만1287명(6.8%), 일시보호 8261명(4.9%), 학급교체 1051명(0.6%) 순으로 나타났다.

최이슬기자



### 완도해경, 완도항 내 정박어선 관속훈련 실시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기정)는 지난 9일 완도항 경비 어선을 대상으로 관속훈련을 실시했으며, 완도해경 구조대 파출소 등은 지속적으로 주요 항포구 어선 대상 관속훈련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 여수해경, 광양지역 치안현장 점검 나서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광양지역 치안 현장 점검을 위해 박제수 여수해양경찰서장이 일선 현장을 둘러보고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여수=김현근기자



### 보성경찰, 아동안전지킴이 발대식 및 직무교육

보성경찰서(서장 임진영)는 지난 8일 아동안전지킴이 발대식을 개최 하고 아동 안전 지킴이의 활동을 격려하기 위하여 관내파출소를 방문하여 위촉장수여 및 상황별대처요령·범죄예방교육 등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

보성=김덕순기자



### 광양소방, '광양매화축제장' 산불예방 동시 대응체계 구축

광양소방서(서장 서승호)는 제22회 광양매화축제가 개최됨에 따라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어, 축제 기간(3. 10. ~ 3. 19.) 동안 소방안전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광양=김현근기자



### 광주 동부소방, 동구 관내 전통시장 긴급 화재안전조사

광주 동부소방서(서장 송민영)는 동구 관내 전통시장에 대하여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지난 7일부터 3일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슬비기자



### 담양경찰, 동신대 상담심리학과 업무협약 체결

담양경찰서(서장 박송희)는 지난 9일 "경찰관의 마음 건강증진과 중요범죄 가피해자의 심리 회복 지원 자문을 위해 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담양=박종영기자

## '멸종위기' 독수리까지...야생조류 164마리 '농약중독' 폐사



겨울철새 도래지 영암호 뜬섬. (사진=전남도 제공)

올겨울 전국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집단폐사 46건 중 11건의 원인이 농약중독인 것으로 나타났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독수리 등을 포함해 164마리가 농약중독으로 폐사했다.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집단폐사 46건을 분석한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 장소에서 5마리 이상 폐사한 집단폐사의 경우 AI가 음성이면 농약중독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농약으로 인한 야생조류 집단폐사는 해당 개체의 생명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농약에 중독된 폐사체를 먹은 상위포식자(독수리 등)의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 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집단폐사 46건 분석 집단폐사 46건 중 11건 원인이 농약중독

실제 지난 1월25일 강원 철원군에서 집단 폐사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독수리 5마리의 식도와 위 내용물에서 농약이 치사량 이상으로 검출됐다.

지난해 12월 말 전남 순천시 일대에서 야생생물 Ⅱ급 흑두루미 5마리의 폐사체에서도 농약이 확인됐고, 올해 초 같은 지역에서 죽새 10마리, 멧비둘기 10마리, 새매 2마리도 농약이 검출됐다.

이들 폐사체 중 새매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에 속하는 상위포식자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지난 2월13일 강원 고성군에서 폐사한 독수리 7마리 사례를 비롯해 4건(31마리 폐사)의 집단폐사 사례도 농약중독으로 보고 관련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이번 검사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는 한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내용과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엄중한 감시를 요청했다.

법에 따르면 유독물이나 농약 등을 살포해 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죽이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야생조류 이상개체 및 폐사체를 신고해 농약중독이 확인될 경우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수용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연구팀장은 "농약이 묻은 범시 등을 고의로 살포하는 것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라며 "앞으로도 야생조류 집단폐사 원인을 분석해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엄중히 조치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환기자

## 경찰,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내주 소환 예정

### 압수품 분석 중...불구속 수사할 듯

경찰이 프로포폴 삼습투약 의혹과 코카인 등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임흥식·37)씨를 이르면 다음 주께 소환해 조사할 전망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3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유아인과 관련, "압수수색한 자료들을 이번주 정도면 분석이 어느 정도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분석이 마무리되면 출석 요구해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 유아씨의 서울 한남동 자택 등 2

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찰은 압수품 분석을 통해 유씨가 마약을 받은 방법, 투약한 경우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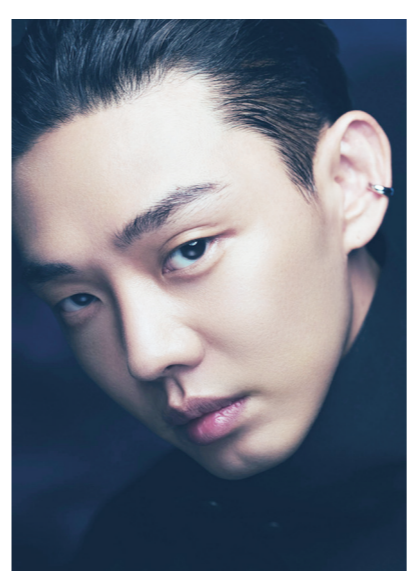
그보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유씨의 모발에서 코카인과 케타민 성분이 검출됐다고 경찰에 통보했다. 지금까지 유씨가 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마약류는 대마와 프로포폴까지 포함해 총 4종류다.

다만 경찰은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은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또 공범이 있는지 여부까지

는 살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는 (공범과 관련된) 특이 단서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올해들어 400명 가량을 적발하는 등 마약류 연중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또 최근 여중생이 필로폰을 투약했다 적발된 사건 등과 관련, "근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젊은 층 마약사범 증가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서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 사이버수사과에서 집중단속하고 있다"며 "이와 병행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청소년들의 마약류 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마약류 관련 광고·판매 사이트를 초기에 폐쇄하고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1



### 한미연합훈련 시작

13일 경기 연천군 임진강변에서 한국과 미국이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훈련에서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등 변화된 안보환경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맞춤형 연습을 실시해 동맹의 대응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빛 값으려' 전국 돌며 차량털이 한 20대 구속

전국을 돌아다니며 문이 열려있는 차량을 노려 금품을 훔친 20대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삼습절도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전주, 순천, 여수, 무안 등 전국을 돌며 50차례에 걸쳐 7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차량을 털렸다"는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지난 10일 광주광역시에서 한 빌라에서 A씨를 붙잡았다.

서선욱기자